



미국 산업계도 인정한 한국의 특허심사

한국의 특허심사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이수원 특허청장이 미국 산업계에 해외 특허청장 중 유일하게 글로벌 IP 리더로 초청되었다.

텍사스 상공회의소*는 변화하는 글로벌 지재권 정책동향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글로벌 IP 리더십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지재권 국제사회에서 선도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재권 정책기관의 고위급 인사*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하면서 미국 이외의 특허청장으로 이 청장을 유일하게 초청했다.

* IBM, 3M, 모토롤라 등 대표적 IP기업 2,500개 이상으로 구성

* David J. Kappos 미국 특허청장, James Pooley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차장 및 이수원 특허청장

지식재산분야 선진5개 특허청(한·미·일·중·유럽, IP5)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親지식재산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협력 사업을 전개해 오던 이 특허청장은 미국의 고위급 인사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특허제도를 통한 한국의 산업발전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글로벌 IP 리더십 정상회의 참석차 오스틴을 방문한 이수원 특허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특허정책을 통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과 혁신의 주요인자로서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지재권의 창출·활용·보호에 관한 한국 특허청의 경험을 설명함으로써 참가한 미국 기업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전했다.

트위터로 부담 없이 특허상담 받아요

특허청은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 등 모바일환경에 맞추어 트위터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상담을 본격 실시하고, 고객상담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상담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40여 명의 전문 상담사들이 하루 평균 3천통 이상의 전화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지재권 상담전용 트위터(@ipconsult)를 통하여 실시간 지재권 상담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궁금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 트위터 전담 상담사가 실시간 답변을 하고 수시로 핵심적인 지재권 상담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트위터를 활용하여 상담센터의 운영상황과 다양하고 유익한 지재권 정보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출원과 등록절차 등에 대한 핵심 문답 내용 등을 담은 애플리케이션도 금년 말까지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누구든지 지재권 상담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지재권에 관한 의문점을 쉽게 해소하고, 더 필요한 사항은 연결된 트위터로 바로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등 5개 지자체 2011년도 지식재산도시(IP-City)로 선정’

특허청은 지난 11월 16일, 경남 진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북구,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를 2011년도 지식재산도시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도시 사업은 2010년부터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특허·브랜드(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인식제고·창출·활용·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5개 지자체는 지식재산진흥조례 제정, 지식재산 현황조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허·브랜드·디자인 관련 사업 발굴, 지역 기업 및 주민을 위한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 발명체험행사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먹거리 상표의 세계화 절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 먹거리 상품의 상표를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를 통하여 외국에 출원한 건수가 외국의 상표가 우리나라 국내로 출원된 것에 비해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먹거리 상품의 연도별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건수를 보면 '07년 26건, '08년 10건, '09년 32건, 금년 9월 현재 7건인 반면, 외국에서 국내로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한 것은 '07년 814건, '08년 922건, '09년 730건, 금년 9월 현재 493건 등으로 먹거리 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은 외국의 국내진입에 비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먹거리 상품에 대한 마드리드 국제상표 다출원 기업은 한국야쿠르트, 주식회사 운화, 빙그레, 동원에프엔비 등이며, 가장 많이 출원한 한국야쿠르트의 상표출원 건수도 46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 먹거리 상표의 해외출원이 적은 이유는

첫째, 전반적으로 해외 상표출원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이 부족하고

둘째, 대부분의 기업이 국내시장 선점에만 치중하고 아시아·중동 등 인구가 많은 신흥 해외 먹거리 시장의 개척을 위한 상품과 상표 개발 능력의 미흡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 한식 즉, 먹거리 상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함께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상품과 호감이 가는 상표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제도'란 하나의 상표출원을 우리나라에만 출원하면서 출원을 희망하는 여러 개의 외국국가를 지정하면 한번에 출원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함(우리나라 가입일 : 2003. 1. 10.)



2010년도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자문위원회 개최

특허청은 차세대영재기업인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도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자문위원회'를 지난 11월 3일(수)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은 특허청이 KAIST 및 POSTECH과 공동으로, 독창적인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미래의 신성장산업 창출을 주도할 차세대영재기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차세대영재기업인이란, MS사의 빌 게이츠, Google사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와 같이 창의적인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한 학생을 말한다.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보, 서남표 KAIST 총장, 백성기 POSTECH 총장,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장,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이민화 기업호민관((주)메디슨 창업자), 안철수 KAIST 교수((주)안철수연구소 창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특허청과 KAIST 및 POSTECH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1년도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식재산분야 규제개혁 성과 '톡톡'

올 한해 추진한 지식재산분야 규제개혁으로 특허고객 등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금년에 추진한 34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국민편익 증대, 민원비용 절감 등 연간 2,7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특허청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도 혁신, 출원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3개 분야에 역점을 뒀다.

먼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 제도 혁신을 단행, 심사 없이 등록될 수 있는 물품범위를 크게 늘리고, 복수 디자인출원을 허용했다. 출원서에 명백히 잘못 적힌 사항이 있을 때는 출원인에게 보정을 요구하는 대신 심사관이 직접 처리하도록 해 심사기간도 줄였다. 디자인 분야에서만 1,763억 원에 달하는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켜 녹색성장 정책기조를 뒷받침했다.

출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 보유건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출원료와 등록료를 50% 감면하는 등 수수료도 정비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과 관련한 기업들의 불편사항 해소에도 주력했다.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분담금 부담을 낮춰 현물매칭을 늘렸고, 신청서류 부담도 대폭 줄여 총 112종의 서류 중 28종을 생략했다. 특허분쟁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컨설팅 지원업체 선정이나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소요기간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허청 변훈석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성과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법·제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등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특허생산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

우리나라가 특허생산성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R&D 분야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최근 발간한 “2010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08년 기준으로 GDP 10억 달러당 특허출원건수는 102.6건, R&D 비용 100만 달러당 특허출원건수는 3.3건으로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특허출원 절대규모는 ’05년 이후 4년 연속으로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 R&D 협력활동은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PCT 국제출원 중 외국 연구자를 포함하는 출원 비율은 전체 국제출원의 5.4%에 그쳐 세계 19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R&D 활동의 특허생산성은 높은 수준이나, R&D의 국제화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연구환경의 국제화 추세 및 외부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추세를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통계로 보인다.

한편, 상표출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08년 기준으로 GDP 10억 달러당 상표출원건수는 86.7건으로 세계 2위, 인구 백만 명당 상표출원건수는 2,211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상표출원은 137,461건을 출원하여 중국(669,088 건), 미국(294,070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디자인 출원 역시 56,750건으로 중국(312,904건), 유럽공동체상표청(78,050건)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관련활동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8년 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날개를 달다.

특허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미투데이(me2DAY), 트위터(twitter) 등 소셜미디어와 연계한 새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통하고 정책고객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해 나갔다.

특허청은 이미 올해 4월부터 '아여세' (아이디어로 여는 세상)라는 정책 블로그와 '상상Key움'이라는 미투데이 및 트위터를 개설하고 정책고객과의 온라인 소통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이번에 새로 개통된 홈페이지는 특허청의 정책속보 및 뉴스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시에 서비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국민은 특허청 미투데이 및 트위터 ('상상Key움')에 접속하면 특허청의 최신 정책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상Key움'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본인의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특허청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이 홈페이지 내용 중 다시 보고 싶은 정보는 본인의 미투데이나 트위터에 바로 저장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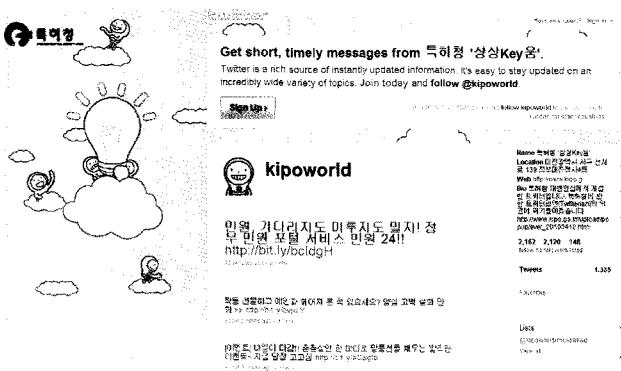
이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영문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고,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내(内) 메뉴별 접근경로를 단순화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 포털 사이트에서도 특허청 홈페이지 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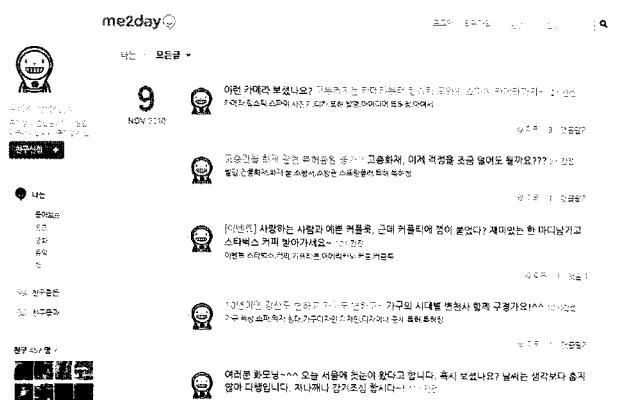
The image shows a side-by-side comparison of the Korean version of KIPO's homepage on the left and the English version on the right. The Korean version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two people holding icons representing patent and utility models, with the text '특하는 미래다'. The English version has a similar banner with the text 'Welcome to KIPO Your Invention Partner'. Both pages include navigation menus for 'About KIPO', 'KIPO's Activities', 'Patents & Utility Models', 'Trademarks & Designs', 'PCT Service', 'Public Relations', and 'Reference Material'. The English version also includes sections for 'KIPO News', 'KIPO Events', and 'KIPO Reports'. A large 'G20 SEOUL SUMMIT 2010' banner is visible at the bottom right of the English page.



- ◆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 ◆ 특허청 블로그('아여세')
<http://blog.daum.net/kipoworld/>



- ◆ 특허청 트위터('상상Key움')
<http://twitter.com/kipoworld>



- ◆ 특허청 미투데이('상상Key움')
<http://me2day.net/kipoworld>

제공 특허청